

김연아 “1년 만이야” 아사다



내달 24일 모스크바 피겨 세계선수권서 한·일 자존심 대결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와 일본의 간관스타 아사다 마오(21)가 내달 24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01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년 만에 만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 세계선수권대회의 정상에 번갈아 오른 김연아와 아사다는 지난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도 서로 최고 점수를 따며 금·은메달을 나눠 가져다. 해가 갈수록 완성도 높은 연기를 펼친 두 선수의 대결은 지난해 정점을 찍었지만, 올 시즌 김연아가 그라프티 시리즈에 불참하면서 여자 피겨 판도는 한순간에 많이 바뀌었다. 일찌감치 2014년 소치 올림픽 도전을 목표로 내건 아사다는 장기인 트리를 약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올 시즌 한 차례도 국제 대

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어린 선수들도 위협적인 실력을 보여주지 못해 다소 실망스럽게 진행된 올 시즌 마지막 무대인 세계선수권대회는 그래서 큰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대회 이후 1년 만에 김연아와 아사다가 동시에 출전하는 만큼 수준 높은 경기를 기대해볼 만했다.

김연아는 지난해 10월부터 피터 오키가드(미국) 코치와 함께 세계선수권대회에 초점을 맞추고 ‘지젤’과 ‘오마주 투 코리아’ 등 새 프로그램을 다듬어 왔다.

아사다 역시 지난해 12월 일본선수권대회와 올해 2월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연달아 준우승하며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았고, 이번 대회에서 2연패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두 선수의 대결은 자칫 이뤄지지 못할 뻔했다. 지난 11월 일본을 뒀던 대지진으로 원래 21일부터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결



론이 났지만, 최고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거품이 된 도쿄 대회에 맞춰 놓았던 신체 리듬과 긴장감이 풀린 상황에서 한 달 동안 다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김연아는 “모든 선수는 3월 도쿄 대회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을 했을 것”이라며 “예정된 일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선수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렵더라도 두 선수 모두 좋은 성적을 내고자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김연아로서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감동을 이어가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 /연합뉴스

전남제일고 수구, 전국대회 5연속 우승

전남체육중 임다솔 수영선수권 3관왕

전남제일고 수구부가 전국대회 5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전남제일고는 28일 제주실내수영장에서 끝난 제6회 제주한라배 전국수구대회 남고부 결승에서 전북체고를 상대로 18-1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번 우승으로 전남제일고는 지난해 7월 수구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대통령배, 회장배, 전국체전에 이어 다시 한번 남고부 정상에 오르며 5개 대회를 연속해서 제패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전남체육중의 임다솔(2년)은 배영 200m, 개인혼영 200m, 계영 단체전 800m 우승을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다. 전남연맹 소속의 권오국도 자유형 100·200m를 싹쓸이하며 남자 일반부 2관왕이 됐다.



전남제일고 서승훈(3년)은 개인혼영 400m와 자유형 1500m에서 각각 금·은메달을 가져갔다. 목포한빛초 문지현(4년)도 배영 50m와 100m에서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성군청 장슬기 금

전국여자주니어역도선수권

보성군청의 장슬기(19)가 제2회 전국여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렸다.

장슬기는 28일 강원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53kg급에서 인상 77kg(3위)·용상 100kg(1위)에 성공하며 합계 177kg를 기록했다.

국가대표 장슬기는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선발전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173kg를 들어올린 2위 권유리(경북·금호여고)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성원 3쿠션 정상

프랑스 빌리어드 마스터스

당구 캐롬(3쿠션) 세계 9위인 최성원(33·부산당구연맹)이 랭킹 상위자들이 모여 벌인 초청경기에서 정상에 올랐다.

최성원은 28일 오전(한국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아지프 빌리어드 마스터스 2011 대회에서 제레미 뷰리(29·프랑스)를 50-4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8강전에서 세계 3위인 에디 맥스(벨기에)에 50-49로 신승을 거둔 최성원은 준결승에서 신에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스(그리스·세계 6위)를 맞아 역시 1점차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최성원은 결승전에서 한때 40-45로 뒤지며 위기에 몰렸지만, 이후 6점을 따라붙여 48-48로 균형을 맞췄고 29번째 이닝에서 2점을 먼저 올려 승리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최성원은 2만5350유로(약 4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대회는 세계 각국의 최상위자들을 초청해 예선과 본선, 결선을 거쳐 왕중왕을 가리는 경기다. /연합뉴스



막을테면 막아 봐 28일 안산와동철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 프로농구 2010-2011 시즌 챔피언 결정 1차전 KDB생명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신한은행 하은주(오른쪽)가 KDB생명 신정자의 수비를 피해 슛을 날리고 있다. 신한은행의 69-58 승. /연합뉴스

한국바둑, 정관장배 2연속 우승

주장 박지은 中 루이에 불계승

한국 바둑팀 ‘주장’ 박지은(27)이 중국의 루이아이에이를 물리치고 한국의 정관장배 2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다. 28일 상동구 흥의동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9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최종국’에서 박지은 9단이 중국의 마지막 주장 루이아이에이 9단을 맞아 백으로 160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5회, 6회, 8회에 이어 통산 4차례 우승하면서 3차례 우승한 중국을 밀어내고 정관장배 최다우승국이 됐다.

지난해 막판 4연승으로 한국의 역전우승

을 이끌었던 박지은은 2년 연속 우승의 수훈감이 됐다.

박지은은 우승 직후 “루이 9단과는 그동안 많이 상대해 기풍(棋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며 “상대가 연승 기세를 타고 있어 어려움을 줄 알았는데 이기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루이는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이지만 국제별로 출전하는 정관장배에서는 중국 선수로 나간다.

정관장배는 한·중·일에서 5명씩 출전해 연승전으로 우승국을 가리는 유일한 국가단체대항전이다. 우승상금은 7500만원. /연합뉴스

광주시민 ‘1인 1종목 갖기’ 추진위 오늘 출범

광주시생활체육회가 29일 서구 치광동 사무실에서 ‘시민 1인1종목 갖기’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

‘시민 1인1종목 갖기’ 운동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며 종목연합회 임원, 대학교수, 유관

기관과 대학생, 기업체실무자, 5개구 생활체육회 등 생활체육 관계자들로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구성됐다.

생활체육회는 학교체육시설무로개방에 따른 방과 후 생활체육교실을 적극 운영하고, 학교생활체육 활성화와 기업

체동호인의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체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 생활체육회 홈페이지(www.gwangju-sport.or.kr)나 5개구 생활체육회(시생 활체육회 717-7330, 동구 608-8946, 서구 371-7330, 북구 671-7781, 북구 576-733, 0 광산구 962-73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금당 공인중개사

- 감정가 이하
 - 금남로5가 상업지388평 공시지가 17억7천 매도15억3천
 - 중흥동 도로점 여관 대지196 건평433평 4층건물 공시지가 3억9천 분양5억3천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872 평 공시지가53억2천 임대소득에 적합 53억2천
 - 화순 이양면 소재지 국도점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작장합 대출5천5백 공시지가에 매도8700만원
 - 화순읍 대지 79 건평 210 공시지가 4억 매도 4억5천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0억8천
 - 동구 6차선 도로와 3차선도로로너 상업지 589평 건평은 637평 공시지가 27억3천 분양5억4천 전세8700 월2800만원 사우나, 헬스, 에어로빅은 직영함, 교환도가능 12억5천
 - 광주역앞 원복 대지108 건평383 감정11억8천 매도 6억4천
 - 황금동 4층 상가주택 대지 68 건평 145 매도 3억3천
 - 충장로가 3층건물 대지20평 1층은한복집, 금방등적합 2억
 - 화순읍 삼천리 주거지역 587평 공시지가 3억4500매도 2억6천
 - 주유소 화순읍 명 1118평 공시지가 10억8천 매도15억5천
- 매도·교환
 - 화정동 4거리 6차선 도로변 준주거 480평 매도16억
 - 화순읍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은 1억7500
 - 남평읍 교원리 버스도로점 211평 주택과공장 1억8천8백
 - 신수동 호남맨션 옆 2중주거지 220평 사할빌라적합 2억4천
 - 하남공단 도천동 자연녹지 506평 공장적합 3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 서구 광천동 토지305평 건평230평 2층건물 감정가 9억5천만 최저가 6억6천만
농가시설	· 광산구 월계동 토지110평 건평375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13억 최저가76억8천만
단독주택	· 서구 광천동 토지43평 건물55평 감정가 1억2천만 최저가 6천3백만 · 북구 대촌동 토지340평 건물117평 감정가 3억4천만 최저가 2억7천만
전원주택	· 장성군 북이면 대지180평 건물46평 최저가1억 5천만
아파트·빌라	· 북구 두암동 다세대빌라 63평형 1층 감정가 1억5천만 최저가 8천5백만

▶이외 상담물건, 산토지 다수보유, 소액투자상당
광주 서구 마북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곡광주전남지사열 유지빌딩 501

전원주택지 급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
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 (3.3㎡당.365,000원)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자연녹지, 현재 임야.
- 서구 덕흥동 제2순환도로 부채도로 접함, 담. 1,886㎡(570평), 3.3㎡당 90만원, 생산녹지.
- 서구 세하동, 서광주역 부근 2,148㎡(650평), 담. 3.3㎡당 72만원, 생산녹지.
- 서구 세하동 매월농원 앞 1,720㎡(520평), 담. 3.3㎡당 65만원, 생산녹지.

무동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쌍촌동 2차선도로 나대지

서구 쌍촌동 2차선도로변 나대지 513㎡(155평), 제2종일반주거 지역매매가 3.3㎡당 235만원, 칸타나, 식당, 업무용빌딩 적합.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 ☆.보종금 : 10억원 월세 :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73억원
- ☆.보종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 : 32억원
- ☆.보종금 : 8억2천 월세 :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28억원
- ☆.보종금 : 1억1천 월세 : 350만 매매가 : 6억7천

♣ 전원주택

-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 ☆.광산구 오운동 대지4,926㎡ 건물 : 66㎡ 매매가격격 : 2억3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 ☆.담양군 수북면궁산리 전원주택단지 내 대지654㎡ 매매가 : 1억2천8백만원

♣ 대지.전.담.임야

- ☆.치평동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 ☆.마북동(30m도로점)대1,350㎡매매가 : 22억원
- ☆.암촌동 정착촌마을대 : 3,600㎡ 매매가4억9천
- ☆.덕흥동 생산녹지 담 434㎡ 매매가 1억7천
- ☆.남구 월성동농로포장도로 코너 3,500㎡ 매매가 1억3천7백만원
- ☆.장성남면 임야 : 13,500㎡매매가 : 4억5천만원

♣ 공장부지

- ☆.광산구 양동(계획관리지역)집중지 : 11,856㎡ 매매가 : 7억9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 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순남(건너편))